

“독도 헬리포트 보수공사 5월 완공”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북서쪽 1km 해양과학기지 건설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해 헬리포트(헬리콥터 이착륙장)의 보수공사에 이미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31일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으나 이미 헬기장 보수공사가 착수돼 조율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맞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착공한 시점은 3월 중순으로 알려졌다며 오는 5월이면 최종 완공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작년 8월 설계 공개입찰을 마무리하고 공사준비를 해왔으나 흑화과 일기불순으로 인해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며 “3월 중순부터 공사를 하고 있으며 두달 뒤면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독도 헬리포트는 1978년 착공돼 1981년 완공된 헬기 이착륙장(가로 20m, 세로 20m)으로, 30년 넘게 사용되면서 안전점검결과 “결함” 진단을 받아 전면적인 개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예산(9억원)을 확보하고 작금 여부가 신중히 검토해왔다.

헬리포트 시설은 현재 경찰청이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오는 7월 완공 예정인 독도 주민숙소의 경우 시기를 앞당겨 5월 말 완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독도 인근 해양조사 등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를 독도 북서쪽 1km 위치에 건설할 계획이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와 공민(일본 사회)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한 가운데 지난 31일 서울 도렴동 외교교통상부에서 열린 독도기획단회의에서 민동석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완공시점은 201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독도경비대 시설을 정비·확충하고 독도체험관과 독도교육홍보관, 독도해양기상관측 부이 설치 운영 등 신규 사업도 검토 중이다.

정부합동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은 30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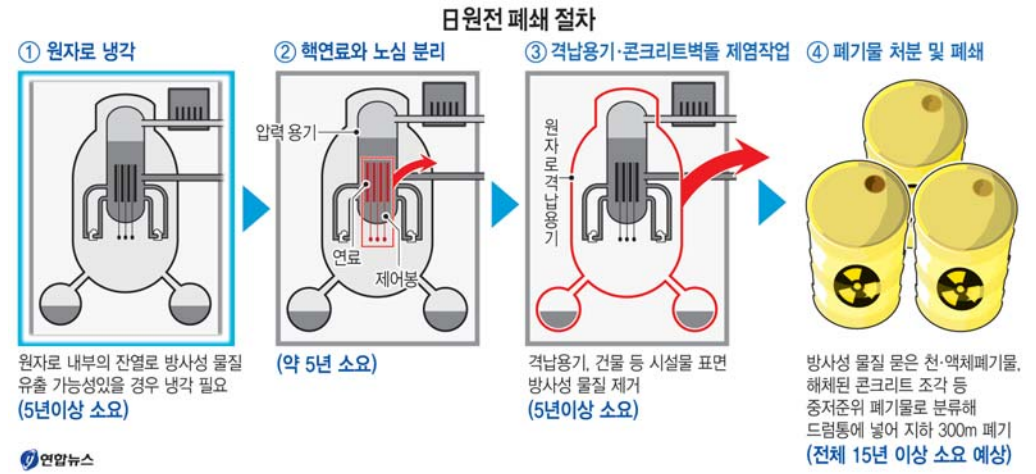
“독도 문제 근본해결은 일본 자기반성 있어야”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은 지난 31일 “독도 문제가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20세기 초 일본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침탈 과정에 대한 일본의 엄격한 자기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대폭 강화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과서 문제가 자주 생기고 양국관계에 주름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측에서 2008년 개정된 교과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라며 “원인을 제공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해법은 일본 측이 갖고 있다. 일본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독도는 우리 국민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이기에 때문에 필요한 모든 주권행사를 앞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며 “이 문제는 합의의 대상도 아니고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 폐쇄 20~30년... 비용 8조원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히면서 절차와 방법, 비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쿄전력의 가스마타 쓰네히사 회장은 30일 기자회견에서 문제가 심각한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의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5~6호기도 폐쇄해야 한다고 밝혀 1~6호기 모두 폐쇄될 전망이다.

원자로 폐쇄에 수십년 = 후쿠시마 원전은 이미 사고가 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고 있어 산적한 난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하는 데까지는 수십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상업 원전 가운데 처음으로 폐쇄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이바라키현 일 본원자력발전 도카이발전소는 1998

년 운전이 종료됐지만 단계적 해체 작업을 거쳐 2021년야 완전히 폐쇄된다.

원자로 폐쇄는 방사성 물질 덩어리이기 때문에 작업을 노심을 냉각 상태에서 제거한 뒤 오염이 적은 설비부터 해체를 시작해 마지막으로 원자로의 격납 용기와 압력 용기의 철강재를 잘단해 지하 깊숙이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스우라 소지로(松浦祥次郎) 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후쿠시마 원전은 우선 오염을 낮추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폐쇄까지는 20~30년은 걸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뿐이다. 1~6호기 모두 외부 전원을 회복하고 주재어실에 불을 끄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터빈실 물웅덩이 등 곳곳에 고여 있는 오염수라는 복병을 만

나 냉각기능 회복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원전 폐쇄에만 8조원 = 후쿠시마 원전의 폐쇄에 들어갈 엄청난 비용도 문제다. 히마오카 원전 1호기와 2호기의 폐쇄를 결정할 주부(中部)전력은 1기당 약 1000억원(약 1조35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1~6호기를 모두 폐쇄할 경우 6000억원(약 8조 1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뿐만 아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유출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인근 기업과 어민들의 피해도 커 막대한 배상이 불가피하다. 피해 배상만 수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의 눈’ 천리안 오늘부터 정규 운영

세계 7번째 기상위성...7년간 임무

교육과학기술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최초 기상위성인 ‘천리안’을 1일 오전 9시부터 정규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인도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기상위성을 운영하는 국가가 됐다. 천리안 위성은 앞으로 7년간 기상관측 임무를 수행한다.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는 지난날 6월27일 남미 기아나 푸르 우주센터에서 천리안위성을 발사한 이후, 궤도상 시험과 지상 시스템 점검 등 본격 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마쳤다.

천리안 위성의 정규운영으로 우리나라는 지구 북반구 지역 기상영상을 15분마다 수신할 수 있다. 기존 일본 위성(MTSAT)으로부터 30분마다 수신했던 것과 비교하면 위성자료의 활용도가 2배 늘게 된다.



더욱이 한반도 지역에 대한 특별관측을 포함하면 1시간 동안 최대 8회를 관측할 수 있어 위험기상 감지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日 교과서검정 외교문제 될 것”

중 관영매체 항의 기사

중국 관영인민매체들이 지난 31일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독도를 자국 영토로 명기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항의’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중학교 사회과, 공민과의 7종류 교과서에 모두 중국과 대만이 영토주권을 주장하는 다오위다오가 센카쿠, 한국이 주권을 주장하는 독도가 죽도라는 이름으로 각각 일본 영토로 명기됐다는, 이는 외교문제로 비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도쿄발 기사로 일본이 다오위다오와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표현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그로 인해 서울

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반일 시위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어 중국도 여러차례 다오위다오가 예전부터 중국 영토의 일부라고, 따라서 중국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에 반론할 여지가 없는 주권이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소개했다.

신화통신은 그러면서 이번엔 일본 문부성이 승인한 중학교 사회교과서에는 한중 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학기부터 사용될 것으로 소개하면서, 해당 교과서에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4개섬을 일본 영토로 명기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그러나 일본의 이 같은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도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日 뒤늦은 SOS...상황 긴박한 듯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위기에 처하자 뒤늦게 세계 각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나섰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자 ‘원전 대국’인 미국과 프랑스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전문가와 장비 제공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원전 사고 대응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세계의 ‘걱정’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아시아 신문과 니혼게이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간 총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원전 사고에 대해 협의를 했으며 미국은 첨단 장비를 동원해 원전 상황 파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는 지난 29일 상원 에너지·천연자원위원회에서 “원전 안에서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로봇을 일본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로봇은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돼도 처리 가능하다고 한다.

미 공군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 원전 상공에서 소량의 방사성 물질도 감지할 수 있는 기상관측 항공기 WC135기를 파견했다.

도쿄전력은 프랑스에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 처리 관련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인 아레바, 프랑스전력공사(EDF) 등에도 도움을 구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도쿄전력에 방사선 작업자 보호용 마스크와 필터를 긴급 요청함에 따라 마스크와 필터 200개씩(4000만원 상당)을 항공편을 통해 전달했다. /연합뉴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